소년단

1956. 9

어진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다. (박 연 암)

노래 불러 떨치자
　꽃보라를 뿌리자.
아버지와 어머니들
　땀 흘려서 이룩한 날
오각별 찬란한
　새 국기를 날리며
살기 좋은 우리 나라
　공화국 선포의 날.

비둘기를 날리자
　온 세계에 자랑하자,
몰려든 원쑤들을
　이겨낸 영웅 나라,
용광로 불'길 높고
　넓은 벌엔 금물'결 쳐
사회주의 꽃 동산을
　세워가는 우리 나라.

어깨 겯고 나가자
　평화 통일 앞 당기자,
우리 위해 활짝 열린
　자랑스런 배움의 길,
남 조선 동무들도
　함께 거닐 그날 위해
항상 준비 또 다지자
　공화국 선포의 날.

앞표지…공장 기술자와 만나서…………김 례규 그림

살림은 늘어만 간다

8·15 명절을 이틀 앞둔 민주 수도 평양의 거리는 명절을 경축하는 프랑카트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쏘련 나라 국기들이 하늘 높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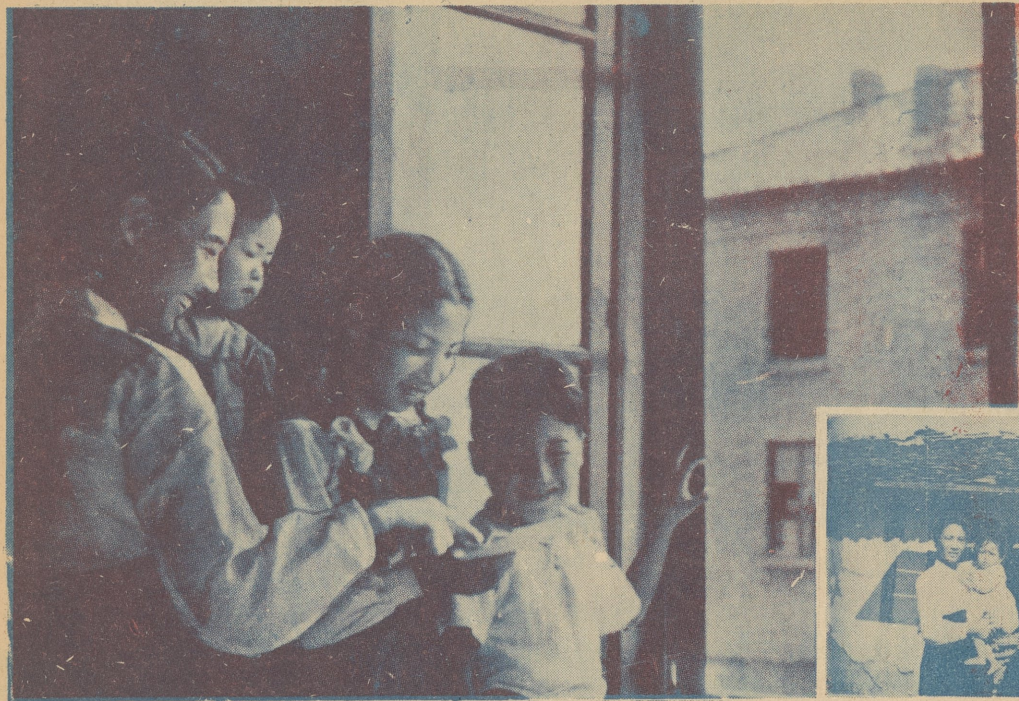
스피카에서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겨웁게 해주었지요.

나는 크고 아름다운 다층 주택 마을을 지나치다가 뽈을 차며 뛰 노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게 되였습니다.

《너희 명절 날에 어데루 놀러 갈테냐?》. 나의 말에 제일 어려 보이는 남자 애 하나가 약삭빠르게 《우린 식구들이 모두 전람회 구경 간댔어요》 하고 생글거리는 것이였어요.

얼마 동안 나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엄마 오신다!》

《이전 네 치마 감이다!》

《옛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옛집》

내가 편집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안 어린이들은 몹시 반가워하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방금 저의 집 자랑을 하던 유택이라는 애는 《선생님 나훌 후엔 나두 소년단에 입단해요》 하고 기뻐하며 자기네 집에서 놀다 가라는 것이지요.

2층인 그의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도 반가워하셨지요

큼직한 방안에는 새로 놓은 침대와 침구들이 보기좋게 놓였고 재봉침 옆에는 어머니가 바느질 하다 만 일'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작은 딸애의 명절 맞이 옷이라면서 바느질 감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이때에 옆방에서 영희라는 애가 뛰쳐 나오면서 《엄마, 엄마 빨리 빨리……》 하고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갑작스레 떠드는 바람에 우리는 유택이와 함께 옆방에 들어갔댔지요.

《어머니! 물건 값이 또 내렸대요》. 책을 읽다 말고 라디오 앞에 모여 섰던 유택이의 누이 옥녀와 영숙이는 합창처럼 웨치며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임금이 오르고 또 물건 값이 내렸으니!》

《엄마 과자 값두 내렸다지!》. 유치원에 다니는 영희는 깡충깡충 뛰면서 누구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이예요! 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뒤'이어 또 물건 값이 내린다니》.

어머니는 나의 손목을 잡으시며 감격해 하시지요.

나는 기쁨에 겨운 이 광경을 혼자만 보기에는 서운해서 카메라(사진틀)를 얼른 내들고 한장 찍었습니다.

동무들에게도 어서 반가운 이 소식을 알리구 싶은 맘에 이들은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 ×

명절을 래일로 앞둔 즐거운 거리를 거닐던 나는 학교에서 돌아 오는 소년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19 중학교에서 만났던 화순이도 있었지요.

《저게 우리 집이예요. 우리 집 구경 가시자요》. 그는 나의 손목을 잡은채 졸라 대는 것이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뜨레스트 철공으로 일하시는 화순이를 따라 그의 집에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고 2학년생인 꼬마 동생이 누나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직 송진내와 뼁끼 냄새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갓이사 온듯한 방안에는 아름다운 옷장과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엿보고 서 있던 꼬마가 큰 소리로 《엄마 오신다》하고 복도로 달음질 쳐 나가는 김에 화순이도 바삐 어머니를 마중했어요.

《엄마. 운동화 사오나?》. 화식이는 어머니가 든 꾸레미를 얼른 받으며 물었지요.

△ 평양 제 19 중학교 인민반 소년단원들은 손목잡고 학교로 가면서 《애, 이건 이번에 내린 값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다 준거야》.

《우리 어머닌 무용복 감도 사왔거던》.

저마다 자기네집 자랑에 신이 났습니다.

《오냐, 그것뿐인줄 아니, 물건 값이 퍽 내려서 운동화를 사구두 남은 돈으로 네 고무공두 또 사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어머니는 더욱 꽃 피여만 갈 행복한 살림을 내다 보는 듯 몹시 흐뭇해 하셨습니다.

명절날 시위에 신고 나갈 운동화를 안고 좋아하는 화순이와 화식이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이건 네 치마'감이다. 너무 눅어서 사왔다…》 하고 하늘색 비단천을 화순의 몸에 대여보는 것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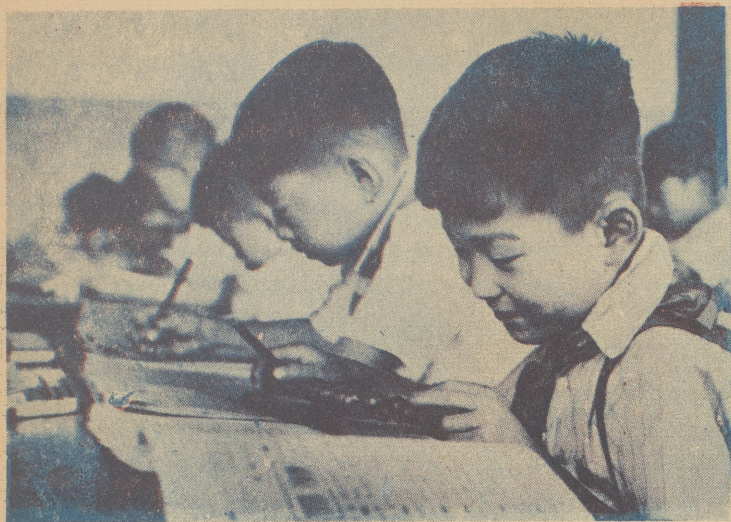
어머니는 만족해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짜는 비단도 이처럼 훌륭해졌으니 인제는 남부러울게 없게 되였어요》하고 날마다 늘어가는 살림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는 바로 저집에서살다가 이사왔답니다》. 어머니는 멀리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집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어요.

《이게 다 우리 로동당이 항상 인민들의 살림을 보살펴주는 덕이라고, 그리구 우리 근로자들이 3개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 해내고 또 여러 형제 나라에서도 도와 주기 때문이라고 저 애 아버지두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지요만 정말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다시 이 집을 나오다가 화순이와 가장 친하다는 매자네 집에도 들려 보았습니다.

………△………

《내린 값으로 산 공 높이 뒤여라!》

8·15 명절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소년단에 입단한 박 유래 동무는 물가 인하와 함께 어머니가 사다 준 필통과 연필, 크레용, 자, 학습장 등을 갖추어 놓고 더욱 더 열심히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저녁 식사가 벌어진 매자네 집안은 퍽 화목해 보였지요.

여러가지 반찬들을 차려 놓은 식탁에 둘러 앉아 식구들은 이날 거리에서 본 이야기들을 나누는 참이였던지 할머니는

《오늘은 국백안이 더욱 홍성거리더구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안그러겠어요. 물건 값이 벌써 다섯번째나 내리고 임금은 또 오르니 집집마다 살림은 늘어만 가게 되였으니까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신다는 림 매자 동무의 오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임금 인상과 물가 인하로 인하여 우리 인민들은 1년에 12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리득보게 된답니다. 이 돈으로 24세대가 드는 3층 벽돌 주택을 1,714동이나 지을 수 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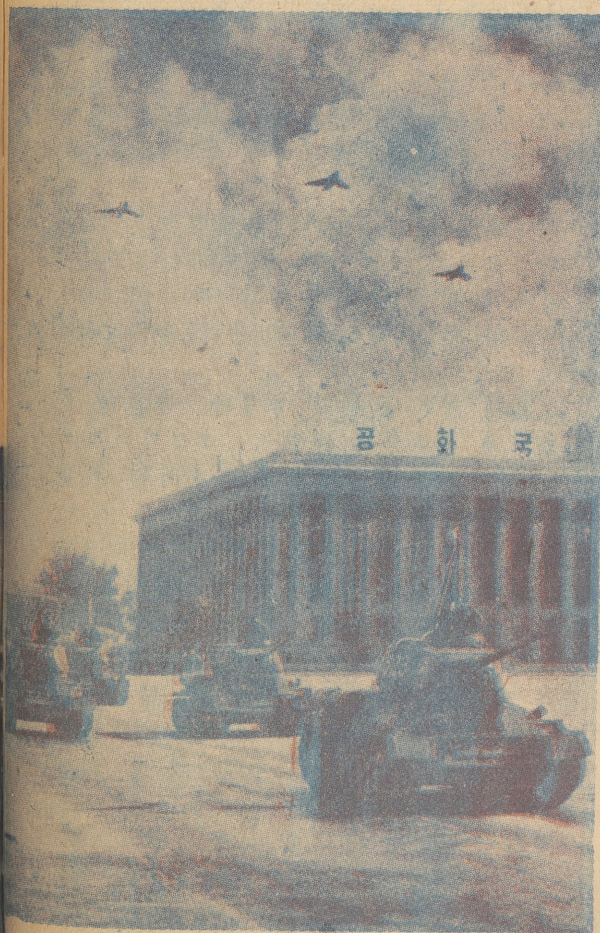
오빠의 말에 매자와 종만이는 《야!》 하고 엄청난 수'자에 놀라며 소리치는 것이였어요.

다시 이집을 나선 나는 내가 찾아본 여러집 식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여기에 적으려고 그들의 얼굴들을 번갈아 그려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 정 렬
김 창 규

△ 조정근 동무의 아버지는 3개년 계획을 넘쳐한 고무 공장의 모범 로동자입니다. 지금 이 아저씨는 날마다 늘어가는 살림에 감격하여 더욱 일'손을 재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남반부 형제들과도 우리의 이 행복을 하루 속히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것이다》라고.

해방 명절의 기쁨

올해에도 해방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8·15 해방 후 11년 동안에 우리 인민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행복을 남김 없이 자랑하였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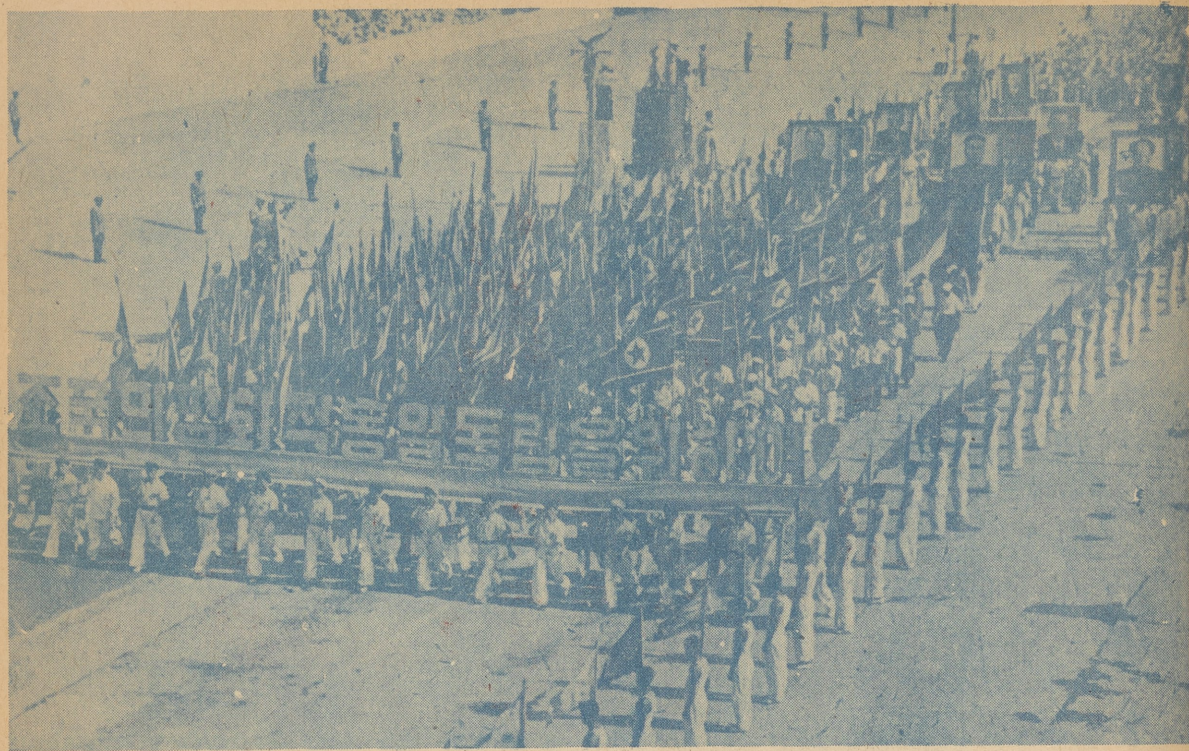
해방의 명절을 맞은 거리와 마을, 공장과 광산, 벌목장과 어촌과 건설장들은 만세 소리 드높았습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소식, 넉달을 앞당겨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공업 생산 계획을 총량적으로)을 완수했다는 소식, 물건 값을 내리웠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들은 집집마다 날아 들어 인민들의 환호를 일으켰습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인민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땀 흘려 온 크나큰 보람을 목 메이도록 노래합니다. 당과 정부에서 베풀어 준 행복에 감사합니다.

조국의 일터들마다에서 땀으로 이룩하는 행복! 이 행복을 굳건히 지켜 왔고 또 앞으로도 튼튼히 지켜 줄 인민군 부대들의 위력,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로 힘차

게 내닫는 근로자들의 무진장한 힘——8•15해방 11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과 30만 평양시 근로자들의 시위는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어느 하나 감격과 환호를 자아내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국의 꽃봉오리들의 자랑찬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세——》

수만 수천의 소년단원들이 일제히 만세 소리를 길게 뽑으며 따뜻히 품어 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주석단 앞으로 달려 나갑니다.

꽃다발……풍선……모형 항공기……

만세！만세！ 소년단원들은 손에 손에 든 꽃다발과 공작품들을 흔들며 주석단에 환호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주석단에서는 내각 수상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손 저어 환호를 보냅니다. 꽃도 뿌려 줍니다.

소년단원들은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여 행복한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 주었고 조국의 훌륭한 새 일'군으로 꽃피여 나도록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는 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맹세합니다.

어버이들은 교대자인 그들에게 조국을 화려한 과수원처럼 꽃피워 줄 것을 바랬습니다.

《빛나는 앞날과 평화를 그들에게 안겨 주자!》. 이것은 어버이들의 한결 같은 소원입니다.

우리들은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들은 행복의 주인입니다.

행복은 해와 더불어 커갑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보다 큰 행복이 약속되여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그것입니다.

명절의 기쁨은 오래도록 용솟음쳐 꺼질 줄 몰랐습니다.

청년 학생 예술 축전이 한창인 극장에도, 체육 축전이 벌어지는 경기장에도 그리고 해방후 11년간 발전해 온 공업 및 농업의 면모를 보여주는 전람회에도 행복과 기쁨의 웃음 소리 높았습니다.

꽃불 오르고 탐조등이 낮처럼 밝히는 평양의 밤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약속된 행복을 싣고 밝아 올 새날의 아침을 기다리며 해방 명절의 밤을 밝힙니다.

해방과 원조의 은인—위대한 쏘련 인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8. 16)

탄부들을 찾아서

리 배 형

한 여름 무더운 날씨가 내려 찌지는 어느날 나는 박 재생 김 치담 두 공훈 탄부가 일하고 있는 안주 탄광을 찾아 갔었다.

탄광이라고 하면 누구나 깊은 산 속을 생각하게 되지만 안주 탄광은 뜻밖에도 그렇지는 않았다.

푸른 벼포기가 싱싱 자라는 넓은 열두 삼천리 가없는 벌판 속에 탄광이 있었다.

탄광이 가까워지자 권양기가 으릉으릉 돌아가는 소리가 쉽 없이 들려 왔다.

길'가에서 만난 김 광자라는 소년단원이 앞장에서 가다가 문뜩 서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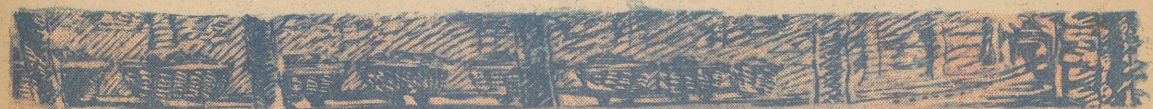
《아저씨 여기가 탄광이예요》 하고 제 고향 탄광을 자랑하는 것이였다.

이 소년은 바로 몇해 전에 이 탄광 마을에서 원쑤들과 싸운 소년 빨찌산의 대원 김 재황의 동생이였다.

《어디 말이야》.

《안 보이세요, 저기 탄다리가 보이지요. 이쪽이 9갱이고 저쪽은 8갱이예요. 박 재생 할아버지는 저기 9갱에서 일해요》.

광자 동무가 대주어서야 나는 권양기 소리가 울려오는 먼곳의 탄다리를 찾아 내였다. 주위는 원통 논으로 둘려 있어 탄다리는 마치 바다 속의 잔교처럼 솟아 있었다.

땀을 드리며 언덕 길에 한참 서 있는 동안 많은 소년단원들

이 나를 둘러 쌌다.

《아저씨, 우리 고향은 참 좋지요. 땅 우에선 낟알을 거두고 땅 속에선 석탄을 캐지 않아요》.

눈이 또릿또릿한 한 아이가 야무진 소리로 말하는 것이였다.

《참 좋구나, 그래 넌 크면 뭘 할테냐》.

《탄부가 되지요》.

대뜸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 다음 아이도 또 그 다음 아이도 모두 앞날의 탄부를 한없이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였다.

《그럼 땅 우에선 누가 일하겠나》.

《광자 동무는 뜨락또르를 몰겠다고 하지 않아요》.

《모두들 잘 생각들 했어, 그래 땅 우에서 일하는 사람도 땅 밑에서 일 하는 사람도 모두 훌륭하지》.

나는 앞날의 아름다운 꿈들을 지니고 있는 소년단원들과 헤여진 다음 인차 탄광을 찾아 갔다.

갱구에는 《석탄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사 기수들이여! 석탄 생산량을 더욱 증가하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더 많이 공급하라!》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구호가 걸리여 이곳 로동자들의 기세를 말해 주는듯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마침 교대 시간이여서 박 재생 공훈 탄부가 갱에서 나오는 참이였다.

머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안전모를 쓰고 검은 장화에 흰 작업복을 입었는데 누가 보아도 땅 속에서 금방 석탄을 캐고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리만큼 말쑥하였다.

《수고하십니다》.

《별 수고랄게 있습니까, 오늘은 탄부 일이 아주 쉬운 일로 되였으니까요. 보십시요, 종일 일해도 옷을 이렇게 마치지 않으니까요》.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얼굴에 진 주름'살은 그가 젊어서 고된 탄부 생활을 해 온 자취를 말해 주었다.

박 재생 탄부는 벌써 30년이나 탄광에서 일해 왔다. 왜놈때에는 감독놈들과 순시놈들의 모진 천대를 받으며 일했다. 왜놈들은 탄부 한 사람보다도 동발 하나를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기면서 갱이 무너져 사람이 상하는 것 쯤은 보통 일로 생각하였다.

몸에 탈이 나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순시놈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자식아 죽어도 갱내에 들어가 탄을 캐다가 죽어!》 하고 채찍으로 족여 대였다.

이러한 속에서 박 재생 탄부도 몇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었고 몇번씩 탄광에서 도망을 쳤다.

해방되여서야 비로소 이 탄광 속에도 밝은 새 날이 왔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왜놈 때와는 달라졌다.

나라에서는 탄부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고 모든 작업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 주었다.

9갱 사무실에 들어가자 박 재생 탄부는 내가 묻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였다.

《왜놈 때에야 정말 작업복이며 장화가 다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게 다행이지. 지금은 정말 아들이 열이 있으면 모두 탄부를 시키겠소. 그렇잖아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동네 소년단원 아이들이 저마다 탄부가 되겠다고 탄부 이야기를 해 달라지 않겠어요. 래일 우리 갱에 들어오면 다 보시겠지요. 정말 왜놈 때와는 딴 판이지요. 공기가 좋지, 첸끔빼야가 왕왕 돌아가면서 석탄을 저절로 실어내지, 무엇 때문에 능률을 못내겠소》.

박 재생 탄부는 자기의 탄부 생활에 대하여 더 없이 영예를 느끼고 있었다.

× ×

다음날 아침 나는 제 9갱으로 들어갔다. 깊이 들어 갈수록 공기는 점점 서늘해졌다. 곁에서 함께 가던 박 재생 탄부는

《보십시요.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서는 무덥지만 여기는 이렇게 서늘하지요. 그뿐이겠어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일지만 이 속은 더운 방과 같지요. 소년단원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한번 갱 속을 구경시켜 달

라고 조르지요》 하고 웃으며 칸데라 불을 다시 앞길에 비쳤다.

차츰 수채로 물흐르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물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 내려서는 다시 배수관을 거쳐 갱 밖으로 나간다. 나가고 또 들어오는 바람으로 하여 옷깃도 날린다. 굴은 또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따금씩 요란히 갱 속을 울리며 탄차가 분주히 오르내린다. 박 재생 탄부는 마치 자기 집안을 드나드는듯 동발 사이로 또 첸 꼼빼야 옆으로, 탄무지우로 재빠르게 넘어서더니

《자, 여기가 막장입니다. 땅우까지는 1,000여m 됩니다》 하고 칸데라 불을 이번에는 벽에 비쳤다. 마치 캄캄한 하늘에서 별이 빛을 뿌리듯이 검은 석탄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채탄공들은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바로 이 무진장한 석탄을 매일 캐내는 것이다. 발파한지 얼마 안되였는지 석탄은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채탄공들은 삽으로 쇠 피대로 된 꼼빼야우에 퍼 놓는다.

꼼빼야는 쉼 없이 이 석탄을 담고 탄차로 실어 나른다.

《왜놈 때에야 이 석탄을 등'짐으로 탄차까지 날랐지요. 그러나 지금은 꼼빼야와 탄차를 써서 화물차에 싣는데까지 불과 20분 남짓하게 걸리고 있지요》.

박 재생 탄부의 이야기는 도간도간 피대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에 끊기우군 하였다.

《아직도 여기서 얼마든지 석탄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진장하니까요. 우리들이 더 많은 석탄을 캐면 캘 수록 그만큼 우리 나라는 더 윤택한 나라로 될 것이지요. 공장도 기관차도 모두 이 석탄으로 돌아가며 움직이며 하니까요. 또 석탄은 우리들의 살림을 꽃피우는 보배이기도 하지요. 이 귀중한 석탄을 넉넉히 캐낼 것을 3차 당대회는 내세웠지요, 우리들은 그것을 어김 없이 해내고야 말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부탁합니다. 밖에 나가거던 꼭 소년단원들을 만나 주시요, 그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조르는데 나야 제 하는 일을 다 자랑해낼 수 있어야지요. 하하…》.

막장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였는데 또다시 탄차가 권양기로 끌리워 나간다.

칸데라 불들은 더욱 불'심지를 돋구어 막장은 밝은 실내와 같이 환하다.

나는 한시바삐 여기서 땅속의 보물을 캐는 이 보람찬 탄부들의 생활을 모든 소년단원들에게 자랑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차는 것이였다.

훌륭한 가르침

우리 나라의 자랑인 박 연암 (본 이름은 박 지원이다) 선생은 훌륭한 학자이시며 뛰여난 재주를 가진 작가입니다.

선생은 조국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로력과 재주를 아낌 없이 바친 애국자였답니다.

연암 선생은 지금부터 219년 전인 1737년 3월 5일 (음력 2월 5일)에 서울에서 탄생하여 69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이 열가지를 배우면 이편은 백가지를 배워 먼저 우리 나라의 인민들에게 리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선생은 조국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 봉건 통치배들은 선생이 쓴 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널리 읽혀지지 못하게 했지요.

량반집에서 태여난 선생은 일찌기 아버지를 여위고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였답니다.

할아버지는 글이 많고 벼슬도 오래 한 량반이였으나 남의 것을 조금도 탐내지 않은 정직한 분이였으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선생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공부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잊어 버리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끝까지 캐고드는 성미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의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선생은 량반집에서 자라면서도 욕심 많고 놀고만 먹는 량반들을 미워했습니다. 때문에 량반 자식들과 휩쓸려 놀기보다도 이웃 가난한 집 아이들과 잘 놀았답니다.

그리고 선생은 늙은이들에게서 옛'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훌륭한 작가로서 인민들 편에서 많은 글을 쓰게 한 것도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차차 몸이 건강해지자 16세되는 해부터 영 목당이라는 선생을 따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뛰여난 재주를 가진 선생은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배웠지요.

4년 동안이나 문밖을 모르고 공부한 결과는 선생이 스무살 때에 벌써 문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책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펴 놓을 때는 하품을 하지 말며 침이 튀게 하지 말라, 또 재채기가 나드래도 머리를 돌려 책에 침이 튀지 말게 하며 표식을 한다고 하여 손톱으로 금을 긋지 말라, 책을 베개 베지 말며 책으로 그릇을 덮지 말라………남의 서적을 빌려 볼 때 거기에 잘못 쓴데가 있으면 정하게

고쳐 주며 종이가 찢어졌거나 책을 궤맨 끈이 풀어졌을 때에는 이를 말쑥하게 손질해서 돌려 주어야 한다》.

선생은 그때의 책들을 거의 읽지 않은 것이 없으리만큼 많은 책들을 읽었으며 글을 배우는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읽는가? 장차 글 짓는 재주를 풍부히 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글 많이 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며 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은 비록 늦게야 글 공부를 시작했었으나 이처럼 남다른 결심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로 또는 학자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독서에 대한 선생의 훌륭한 가르침을 더 적습니다.

× × ×

어진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다.

부모는 너 나 할것 없이 아들의 글 읽는 것을 바란다.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글을 읽을 때처럼 그 부모가 기뻐한 적은 없다……

× × ×

글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너무 욕심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 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 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 말고 하라.……

사진은 도서실에서 책을 즐겨 읽는 평양 제6 중 학교 인민반 소년단원들.

아름다운 결과

— 강원도 제 1초등 학원대에서 —

어느날 4분단에는 이쁘장하게 생긴 만철이란 동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새 동무가 왔다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나 친절히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을 지나도록 만철이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계속되였습니다.

아침 기상종이 울려도 늦도록 누워 있다가는 잠'자리도 동무들이 거두어 주려니 하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난 뒤에도 세면 도구를 그냥 방'바닥에 딩굴리며 이튿날 아침에야 부랴부랴 찾는 때가 많았습니다.

오침 시간이 돌아 와도 만철이는 조용히 잠들 생각은커녕 담'요 우를 딩굴며 곡예를 한다고 떠들어 결 동무들을 자지 못하게 한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때때로 동무들이 주의를 주면 《너희들은 멀 잘났다고 빼기는 게야…》하며 천연스러웠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만철이의 나쁜 습관을 빨리 고쳐 주며 동무들을 따라 잡지 못한 학습을 도와 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래 학습 시간이나 복습 시간에도 친절히 설명해 주며 늘 같이 공부하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만철이는 복습 시간에도 슬그머니 어딘가 나가 놀다 오군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하는척 하다가는 그만 집어치우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도 산수 중간 시험을 시작하려는데 만철이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전체 분단 동무들이 만철이 때문에 걱정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온 학교 주위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철이는 멀리 강'가에서 《가가 가가》하며 오리를 몰고 다니다 뛰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철이는 시침이를 뚝 따고 《선생님! 내가 말은 오리가 수영 섰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였어요.

만철이는 이날 시험을 아주 보잘것 없이 치렀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침실에 돌아온 만철이는 가만이 생각에 잠겼습

니다. 《시험 성적이 발표되면 분단 열성자들은 또 같이 공부하자구 놀지두 못하게 굴겠지… 선생님은 물론 보모선생님도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실거구…》

만철이는 이런 생각 끝에 지금의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저녁입니다. 자기와 제일 친하던 5분단 순덕이더러 《우리 가서 마음대로 자동차두 타구, 기차두 타 보자! 응… 그럼 멋질거 아니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약속이 맞은 두 동무는 학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 ×

만철이와 순덕이는 며칠 못되여 학원 뒤'산마루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난 너 때문에 갔댔어》. 《네가 먼저 가자구 하지 않았니!》. 두 동무는 서로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후회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학원을 떠난 날부터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면 동무들과 같이 오락과 춤, 노래로 즐겁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또한 폭신폭신한 담'요에서 보모 선생님의 자장가를 들으며 포근히 잠들던 일이며 같이 조기회를 하기 위해 동무들과 함께 개굴'가로 달음쳐 나가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날 저녁 만철이는 《순덕아 난 학원으로 도루 갈래》 하며 소리를 내여 막 울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선생님들과 분단 동무들이 자기를 돕고 사랑하여 주던 일이 새삼스레 느껴지는 것이였습니다. 순덕이도 눈물이 글성글성해지는 것이였습니다.

학원 뒤'산 마루까

지 찾아온 두 동무는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구, 동무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을테다. 그래서 나두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래》. 몇번이고 새 결심을 다졌습니다.

두 동무는 부끄러워 선생님과 동무들을 어떻게 만날가 하는 생각에 망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려 줄거야…》. 만철이는 순덕이를 바라 보다가는 빤히 내려다 보이는 자기 침실과 교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하시는지 꼼짝하지 않고 듣던 동무들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오라고 손짓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윽고 종 소리가 땡땡 울리자 학급 동무들이 운동장으로 뛰여 나왔습니다.

만철이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조이며 동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때 유심히 뒤'산 마루를 바라보던 분단 위원장 학봉이가 만철이를 알아보고 《만철아!》 하며 막 뒤'산으로 뛰여 올라왔습니다. 동무들도 《와》하고 뒤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만철이의 가슴은 뒤설레였습니다. 《만철아 어디 갔댔니》. 학봉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동무들도 빙 둘러 섰습니다. 《선생님이랑 보모선생이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동무들은 반가워 기뻐하는 한편 《어딜 갔댔니?》 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만철이는 아무 말도 않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선생님께 가자》. 학봉이와 몇몇 동무들은 만철이와 순덕이의 손을 잡고 내려 오고

어떤 동무들은 선생님에게 먼저 알리려고 날듯이 뛰여 가기도 했습니다.

욕하실 줄만 알았던 선생님은 아주 딴판이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들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몸이나 아프지 않았는가고 물으시며 친절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학급으로 돌아오던 만철이는 동무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단 모임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만철이가 학원에 취미를 가지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저마끔 토론하는 것이였습니다. 만철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다시금 굳은 결심을 다지는 것이였습니다.

× ×

이튿날부터 만철이의 태도는 놀랄만치 달라졌습니다. 기상 종이 울리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방안을 깨끗이 거두고 화단에도 물을 주며 아침 복습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만철이는 그후 얼마 안되여 학급에서 위생 사업을 책임지게 되였습니다. 위생 사업을 책임진 후 만철이는 조금 다친 동무가 있어도 곧잘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분단에서는 만철이를 꼬마 의사라고까지 부르게 되

였습니다. 만철이는 학습에도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산수 문제를 풀어 보다가 보모 선생님의 독촉을 받아 잠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만철이는 무척 소년단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대나 분단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도 모두 소년단에 입단했는데… 나도 노력하면 되겠지…》하고 새 결심을 다지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1학기말 시험을 보통으로 높였던 것이 2학기 중간 시험에는 우등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인제는 선생님이 질문 하실 때도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도원 선생님과 분단 열성자들은 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만철이에게 자주 들려 주군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첫 날입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입단 서약식에서 만철이에게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달아 주었고 만철이는 오른손을 힘있게 들어 소년단 경례를 하였습니다

입단 서약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학봉이가 안겨준 꽃다발을 안고 뛰여 나오던 만철이는 순덕이와 만났습니다.

《만철아! 다음 입단 서약식에서는 나두 입단할 수 있다구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나더러 준비하라구 했어…》. 《그래!》. 두 동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빙빙 돌며 신년 축하 모임에 들어 갔습니다.

× ×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만철 동무네 분단 동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고 내가 만난 만철이는 자기가 최우등생이 되던 경험과 반생활을 지도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분단 열성자가 된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였습니다.

(최 옥 선)

송　　봉　　렬

즐거운 새 학기 기쁜 이날에
나는나는 순이를 생각합니다.
야영기 휘날리는 동해 바다'가
새'하얀 모래밭에 뛰놀던 동무
보조개도 귀여운 둥근 얼굴을.

순이는 해방 지구 소년단원
분계선을 눈앞에 두고 산다는
노들강변 어깨춤이 멋지던 동무.

순이에겐 언니가 있었답니다.
오빠도 동생도 없는 순이에게
쌍둥이로 불리우던 사촌 언니
　하나
십리'길을 사이 두고 살았답니다.

원쑤들이 십리'길을 막았답니다.
애태우게 그리운 마음을 갈라
오가는 꿈'길마저 막아라도 낼듯
총 칼을 버티고 서 있답니다.

《혜순 동무!》
즐거운 야영을 끝마치던 날
해당화 붉게 핀 백사장에서
순이가 펼쳐뵈던 일기 한토막—
나는나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언니!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운 언니
학교에도 못가던 원통하던 지난
　날
언니랑 멀리 북녘 하늘 우러러
…저곳 사는 동무들은 행복도
　　　하다는데…
…저마다 즐겁게 배우며
　　　산다는데…
공화국 기'발을 그려도 보았고,

낡아빠진 그림쪽을 앞에다 놓고
바다란 얼마나 넓은 곳일가?
가없이 푸른 하늘만 바라 보았던
　나는

따뜻한 공화국 품 속에 안겨
지금은 어엿한 소년단원
오늘은 이곳에서 이 일기를 씁
　니다.
언니를 생각하며 이 일기를
　씁니다.

여기는 동해'가 우리들의 야영소
언니는 생각조차 못해 보는 곳
갈매기도 춤 추며 날아듭니다
푸른 물도 철석이며 노래합니다.

발 돋우고 손짓하면
맞 부를듯 가로 누은
그 신'줄기 언덕배기 오막사리에
지금도 언니는 살고 있는지…
어제'밤도 새'하얀 침대 우에서
나는나는 언니를 생각했다오.

아침 저녁 야영소 식탁 우의
기름진 동해바다 고기'국만 보
　아도
언니 생각 정말이지 간절하다오.
밀 지울밥 입에 물던 언니 얼굴
　떠올라
목이 메인 적도 한두번이 아니
　라오.

더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들이…
언니를 그리는 간절한 내마음이
이렇듯 나날이 커만 갑니다.

송기'대 베끼며 배고프던 뒤'산
　떡바위
언니와 잘 오르던 그 바위에서
소리쳐 언니를 불러 보아도

오늘은 대답 없는 그리운 언니!.

그러나 나는나는 이글을 씁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을 믿어
언니에게 펼쳐놓을 이야기 담아
나는나는 오늘도 이 일기를 씁
　니다.

×　　　　×

나는 순이를 생각하며 학교갑
　니다.
즐거운 새 학기 기쁜 이날에
해당화 핀 백사장에서 읽은
　사연을
언니 그리는 순이의 간절한 마
　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학교 갑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

아름다운 금강산

아름다운 금강산은 우리 나라의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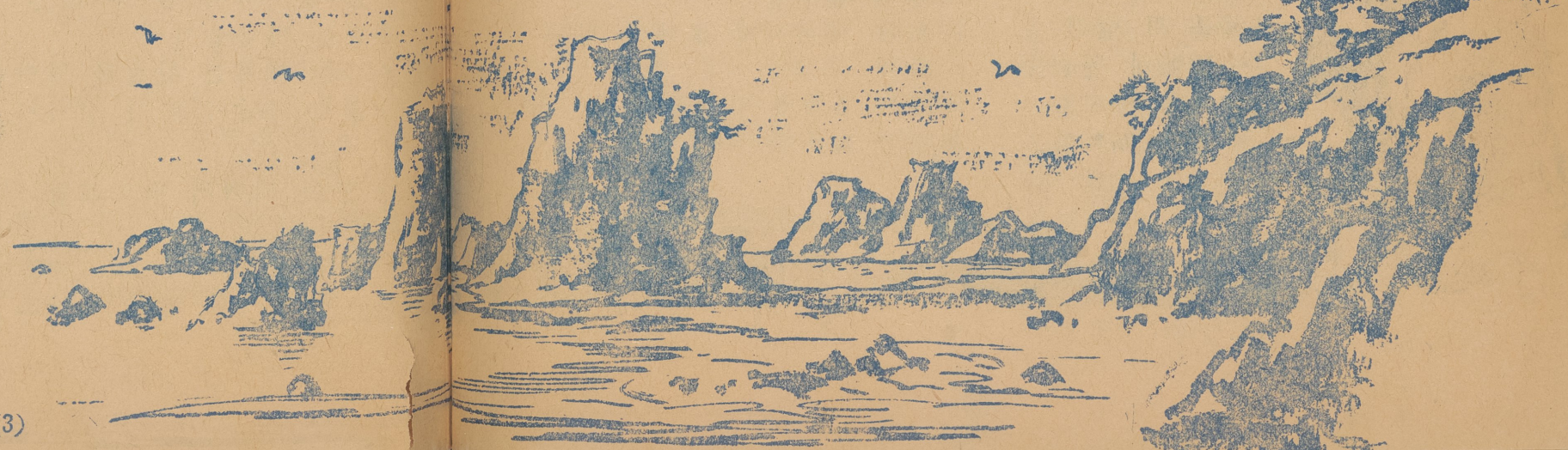
금강산은 아름답기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한 중국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조선의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금강산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림 리 건영

①망 군 대 ②삼 선 암
③해 금 강 ④귀 면 암
⑤쌍 룡 폭 ⑥총 석 정

오늘은 탄부절

박 문 서

공장 지구에 사는 소년들
도시와 농촌에 사는 소년들,
우리의 아버지며 오빠인 탄부들
　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름'달같은 둥근 등 이마에 달
　고
지하 깊은 갱도에서 탄을 캐시며
탄부 아저씨들 흘리는 땀이
공장마다 검은 연기 치솟게 하고,

더 많은 석탄을, 질좋은 석탄을
　　　캐시자고 애쓰시는
　　　　그 마음이
　　　기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우리 나라 새 살림 꽃펴 갈수록
보다 보다 많이 쓰일 석탄임을…
잠시라도 없어서 안될 석탄임을
우리 소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려운 일 하시는 탄부 아저씨
　들의
고마운 그 마음을 잊지 않아요.

새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은
어서 어서 자라고 또 배워서
탄부아저씨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넘겨 받아 좋은 '일'군
　될래요.

오늘은 탄부절
우리의 아버지며 오빠인 탄부
　들께
우리의 맹세를 인사로 드립니다.
소년단 인사를 드립니다.

명랑한 소년들

—평양 사범 부속 인민 학교 대에서—

새 나라의 따뜻한 품에 안기여
십년을 자라 온 조선 소년단
………

조용하던 운동장에 명랑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명씩 줄지어서 교문에 들어서는 소년단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참 씩씩한 애들이군…》. 학교 옆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자랑스레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준비하자!》. 서로들 만나면 웃음 띄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지요.

이곳에 우연히 왔던 나는 4분단 동무들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오기 전까지 백양나무와 버드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운동장 둘레에서는 여러가지 유희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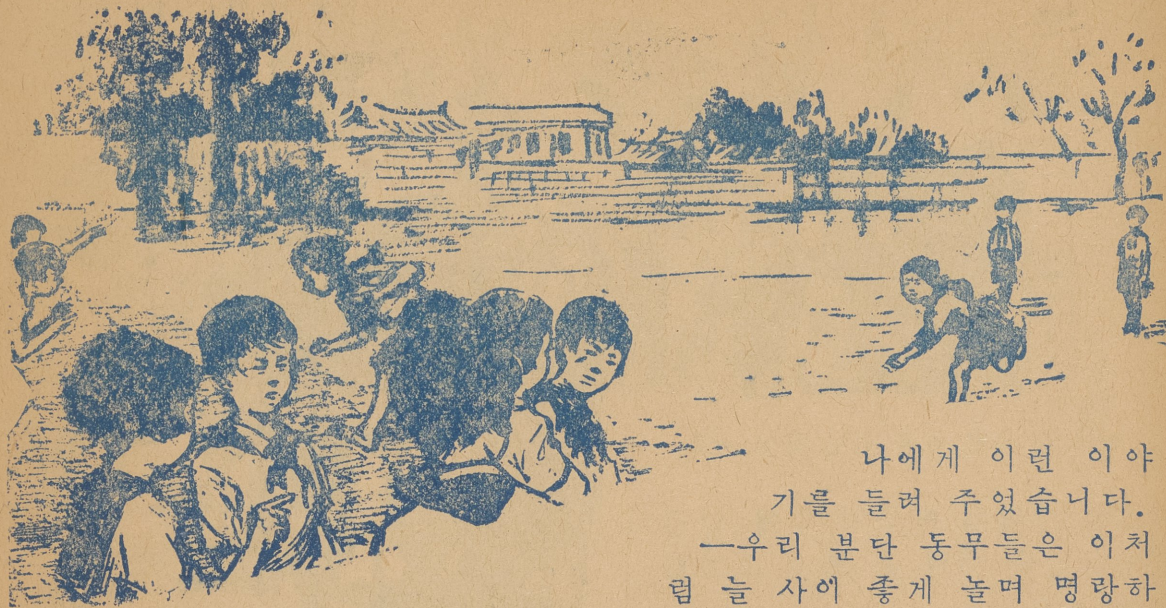
두번씩 박수를 치며 《2, 3》《3, 5》하고 번호 맞추기는 아주 재미있는 놀음이였어요.

《야! 옥실이가 틀렸다. 틀렸어》 하고 모두들 웃어대며 손'벽을 요란하게 칩니다. 《3, 5》 하고 그만 춘옥 동무가 부른 번호를 그대로 받아 부른 옥실이가 노래를 부르게 되였습니다.

옥실이는 벙글거리며 일어서더니 《어머니의 품》이라는 노래를 썩 잘 불렀지요. 운동장 한 가운데서는 《따라 잡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김 자유 동무는 그만 신 상녀 동무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아이 답답한 애두, 좀 더 날쌔게 뛰겠지…》. 자유 동무와 한 편인 여러 애들이 안타까워들 했지요.

이윽고 상학종이 울렸습니다.

와짝 떠들며 뛰놀던 소년단원들이 교실에 들어가고 혼자 남은 나는 명랑한 소년단원들과 이야기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방과후에 다시 찾아오게 되였습니다.

× ×

무덥던 날씨는 갑자기 무거운 구름을 모아오며 비'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수업을 마친 4분단 동무들은 종회 시간을 기다리며 교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또 새로운 노래가 나왔어》 하고 기수 동무는 어저께 저녁에 라디오에서 배운 《노래하자 8월》을 가볍게 부르는 것이였어요.

《야! 참 재미 있구나, 우리도 배워 주렴》 하고 동무들은 청했지요.

기수 동무는 동무들에게 노래를 배워 주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배우고 난 분단 위원장 동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이처럼 늘 사이 좋게 놀며 명랑하게 배워 나가지요.

분단 모임 때에 가지는 오락회에서도 저마다 앞을 다투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긴답니다.

한때에는 부끄러워만하고 잘 어울려서 놀지도 않던 동무들이 적지 않았어요.

지난 8.15 10주년 때였어요. 우리 분단 열성자들은 써클 공연을 앞두고 《우리 분단의 자랑》이라는 연극을 준비 하기로 의논 했지요.

그래서 분단 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승덕 동무와 기수 동무를 주인공으로

하고 많은 동무들을 련습에 참가시키기로 했어요.

《부끄러워 어떻게 연극을 다 하니》. 승덕 동무가 이렇게 우겨대며 련습에 참가하지 않겠지요.

그러자 기수 동무와 다른 동무들도 부끄러워 못하겠다고들 하잖겠어요.

이리하여 연극 련습은 그만 할 수 없게 되였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분단 위원회가 잘못 했어요. 연극 할 동무들을 우리끼리 정하고 그들과는 의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일에서도 동무들은 힘을 합하지 않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했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날 체육 시간이였지요. 두패로 나뉘인 우리들은 륙상 경주를 하게 되였답니다.

한참 승부를 다투느라고 서로 응원을 하고 있을 때에 앞서 나가던 승덕 동무네 편은 영숙 동무가 뒤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지고 말았지요.

《참 애두 거북인가…》. 체육 시간이 끝난후에도 동무들은 이렇게 영숙일 보고 성을 발끈 내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는 것이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전학해 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동무들의 눈치만 보며 서먹서먹해 하던 영숙 동무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튿날 아침에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요. 우리 분단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였어요.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였지요. 이렇게 되자 출석률은 점점 더 나빠가고 성적도 뒤떨어져 갔습니다.

우리 열성자들은 선생님을 도와 어떻게 하면 동무들이 활발해지며 분단이 화목해질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후 열성자들은 힘을 모아 분단 도서실을 꾸며 놓았고 영화 감상 모임도 자주 가졌지요.

한번은 《쾌활한 꼬마 가족》을 읽고 동무들에게 꼴랴와 미쉬까가 분단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끝내 병아리를 까내던 이야기를 내가 해 주었지요.

동무들은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저마다 읽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후부터 도서실을 찾아가는

동무들은 날마다 늘어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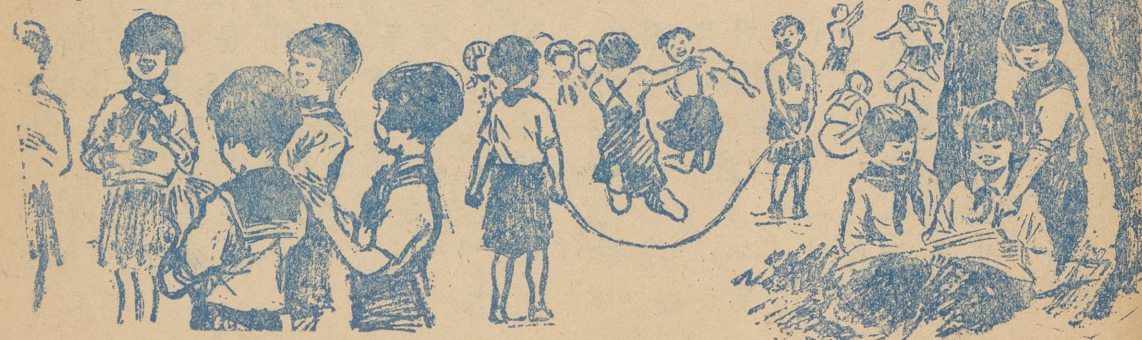
《"도끼 장군"은 참 재미 있더라》. 만나는 동무들은 읽은 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정스럽게 주고 받고 하게 되였어요.

벽보에는 책을 많이 읽은 모범적인 이야기들과 감상문들이 나붙게 되였습니다.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가지면 요전까지 수집어만 하던 동무들까지도 지금은 자기가 더 많이 이야기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분단 위원회에서는 동무들이 더욱 명랑해지도록 쉬는 시간에도 다 함께 뛰 놀 수 있는 유희를 많이 배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유희 이외에도 책에서 읽은 《둘러묶기》, 《기'발 꼿기》등의 유희들을 서로 서로 배우며 배워 주며 했지요.

그리하여 쉬는 시간마다 우리는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손목잡고 서로 뛰놀게 되였어요.

이때부터 더욱 명랑해진 동무들은 분단 위원회에 새로운 의견들을 내 놓고 의논하게 되였지요.

날마다 우리 분단에서는 흥미 있고 다채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손으로 연극도 훌륭히 해내며 잘되지 않던 실습지도 잘 가꿀 수 있게 되였어요.

《4분단 동무들은 참 명랑한 애들이야…》 하고 다른 분단 동무들이 부러워하기까지 되였답니다. …—

서로 서로 도우며 배워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분단 동무들의 명랑한 생활에 대한 분단 위원장 동무의 자랑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박 정 렬)

중국 우화 그루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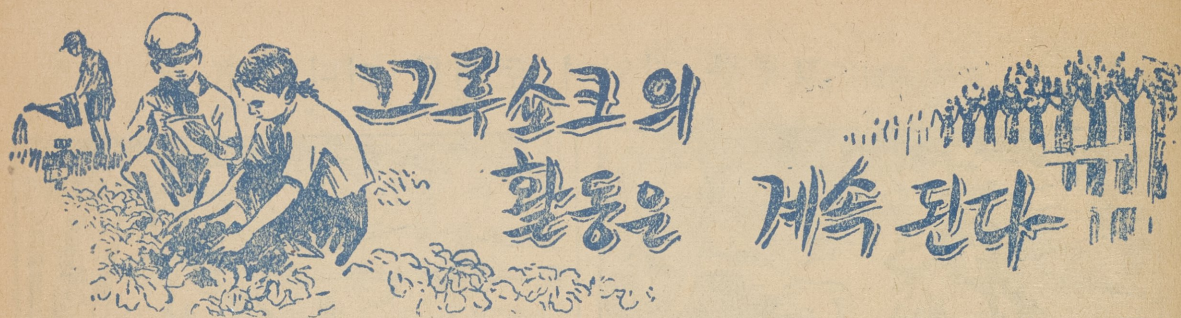
(1) 옛적에 어떤 농부가 밭 갈이를 나갔습니다.

(2) 농부는 토끼 한마리가 뛰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토끼는 큰 나무 그루에 부딪치여 죽었습니다.

(4) 농부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죽은 토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이때부터 농부는 보습을 동댕이치고 밭을 묵였습니다. 토끼가 나무에 부딪쳐 죽기를 기다리느라고.

(6) 그러나 어디서 또다시 그렇게 죽은 토끼를 얻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6월 24일부터 진행되였던 전국 소년단 축전에 나는 꼬마 농학자로 참가하는 영예를 지녔댔지요.

과학 기술 끄루쇼크 모임에서 많은 경험들을 배우고 돌아온 나는 우리 학교 자연'과 끄루쇼크원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특히 온천 제1 중학교(인민반)와 혜산 제1 중학교(인민반) 동무들의 실습지 운영에 대한 경험에 감동되였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지난날 우리 학교 끄루쇼크의 활동을 총화해 보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의논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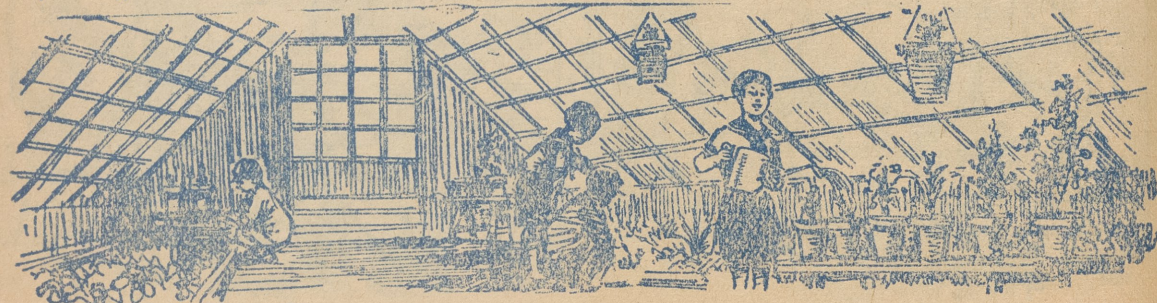
우리들은 온실과 실습지를 가꾸는데 다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에만 머리를 돌리고 실험과 관찰은 적게 했었지요.

앞으로는 재배하는 식물을 관찰해 나가며 실험도 많이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끄루쇼크에서는 옥수수의 인공 수분도 해 주면서 인공 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해서 관찰했지요. 인공 수분을 한 옥수수는 알이 굵고 이삭이 컸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밭에다 부식토를 깔고 무와 배추를 심어 놓고 토양의 성분도 연구했습니다.

객토 작업을 한 밭의 무와 배추는 다른 밭의 것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이 없던 온실에다가 우리들의 손으로 새로 온돌을 만들어 놓았고 밭아 실험대와 화분대도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자연'과 끄루쇼크는 계속 활동하면서 온천 제1 중학교 동무들의 경험을 본받아 동물원도 훌륭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남 룡천 제1 중 학교 대
제 3분단 위원장 리 일 성

새로 오신 선생님

새 학기를 맞는 첫날이였어요.

우리들에게는 앞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는 새로 온 선생님이 소개되였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번에 군대에서 제대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과 퍽 친근하여졌어요.

어느날 마지막 시간을 끝낸 다음이였어요.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여다 보시면서《오늘은 왜 지각생이 많았을가요》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아무때나 선생님의 물음에 선참으로 대답하는 재선이는《오늘 비 왔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날이면 의례히 지각해도 괜찮다는듯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각생이 많다고 단단히 책망을 듣겠거니 했더니 뜻 밖에도 선생님은 벙글벙글 웃으시면서 전투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좋아라고 손'벽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우리들은 쥐죽은듯이 조용해졌어요.

——1950년 우리 인민 군대가 북반부에 쳐들어오던 원쑤들을 무찔러 남으로 진격하던 때 일입니다.

적 후방에 정찰 나갔던 정찰병들로부터 정찰 보고와 함께 미국놈들이 밀양이라는 곳에서 애국자들을 학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어 왔습니다.

한시간 전으로 거기에 닿아야만 애국자들을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부대장은 애국자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곳 산마루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미국놈이 애국자들을 사형장에 내다 세워 놓고 총살하려는 참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들은 감동되여《야!》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은《만약 1분만 늦었다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군대에서는 시간을 이처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긴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지각하지 말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평남 안주 제1 인민 학교
제 4학년 김 만 춘

한 창 수

해가 서산에 기우는 저녁이면 서울 거리는 더욱 음산한 공기로 휩싸입니다.

눈에 불'심지를 단 기마병들의 채찍 소리가 거리와 골목에서 들려 오는가 하면 경찰서 앞마당에 쌓은 바리케트에서 기관총이 입을 도사리고 사람들을 노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해지는 저녁 거리를 어린 두 학생이 걸어 가고 있습니다.

열 한살 가량씩 되여 보이는 두 학생은 따닥따닥 기운 해진 옷에 발'가락과 발'뒤축이 드러나 보이는 검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들은 삼선 국민 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서 경재와 박 윤복이라는 학생들입니다.

말없이 걸어가던 윤복이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경재야! 너의 아버지는 요사이 일자리를 구했냐, 우리 아빠는 두달째 일을 못한단다. 어저께도 삯짐을 지려고 아현동 네거리에 종일 서 있다가 돈 한푼 못벌고 그냥 돌아 왔어.

—일자리가 다 무엇이냐, 아버지가 다니던 전기 회사는 영영 문을 닫았대! 그래서 우리 집 식구는 오늘 아침도 끼니를 넘겼단다.

—그런데 얘 경재야! 난 요사이 공부하기 싫어 죽겠구나! 암만 글을 읽자고 애써도 배 고파서 머리가 휭휭 돌아 가는 걸 어떻거니!

—나도 너와 마찬가지야! 그건 둘째 치구라두 선생이 무서워서 견디겠냐!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래일까지 월사금을 안가져 오면 도루 집에 보낸다고 선생이 울렸단다. 아마 인제는 학교에 영영 못다닐가봐.

—월사금 못내는게 어디 너뿐이냐, 나는 아버지가 요행히 꾸어서 겨우 물기는 했다만 내달은 어떻거니! 영식이와 수남이는 월사금과 《교육세》를 못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단다.

그런데 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게 모두 미국놈과 리승만 때문이래!

—쉬! 누가 들을라! 그놈들 탓인 줄 누가 모른대!

—벌써 집에 다 왔구나! 그럼 경재야 조심해서 가라! 래일 학교에 못나오게 되면 우리 집에 놀라와 응!

—그래! 꼭 찾아 갈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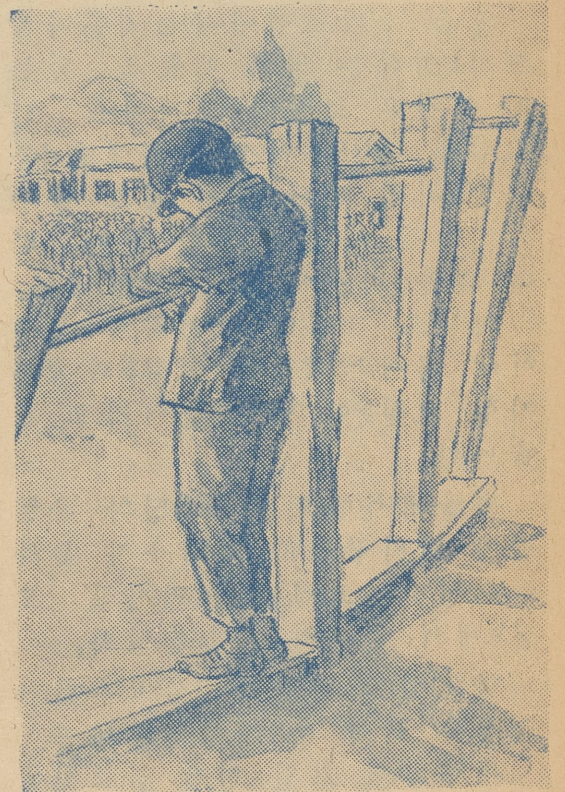
반은 서로 달라도 아버지들이 같은 공장에 다닌 일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경재와 윤복이는 이런 말을 나누고 서로 헤여졌습니다.

이튿날입니다. 학교에 간 윤복이는 경재가 왔는가 알아 보기 위해서 교실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경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복이는 변소'간이며 운동장 구석 구석을 찾아 보았으나 경재를 종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상학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윤복이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찌그러진 철봉대에 왼팔을 힘없이 늘이운채 우두커니 서만 있었습니다. 어제'저녁 월사금 때문에 걱정하던 경재의 해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복이는 자기도 오래지 않아 경재처럼 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경재의 눈은 어느듯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 ×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배움의 길을 잃고 안타까움에 가슴을 조이는 학생은 남조선에 윤복이나 경재뿐이 아니랍니다. 《북진 통일》을 입버릇처럼 외우며 미쳐 날뛰는 미국놈과 리승만 도배들은 국민 학교의 나어린 학생들에게서까지도 월사금외에 《교육세》니 《교원 접대비》니 각가지 이름을 가진 잡부금을 앗아 낸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놈들은 서울시에서만도 《교육세》라는 이

름으로 2억 3천만환이나 빼앗아 냈으나 교실은 커녕 아무 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남조선에는 3만 5천개의 교실이 모자라고 있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교실이 모자라서 한 교실에 150명 이상의 학생을 《콩나물》처럼 빽빽 몰아 넣고 공부시키는체 하면서 돈만 받아 먹는 것을 비웃어 하는 말입니다.

이래도 교실이 모자라서 요사이에 와서는 《천막 교실》과 《판자집 교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7,200명의 학생들이 비바람조차 가리우지 못하는 《천막 교실》과 《판자집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것 뿐이 아니랍니다.

지난 5월 26일 현재 남조선에는 끼니를 굶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국민 학교 학생은 61만명이나 되며 전라북도 남원 주촌 국민 학교 학생들의 92%는 하루에 한끼 혹은 두끼를 굶으면서 학교에 다닌답니다.

이런 까닭에 남조선 국민 학교 학생들중에서 50—80%가 여러가지 병에 걸려 있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리하여 남조선의 신문들까지도 이와 같이 《코막고 답답한 형편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조선의 어린 학생들도 아버지와 형님들의 뒤를 따라 미제와 리승만놈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 국민 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학생들이 서로 약속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하였답니다. 바빠난 교장은 선생들을 마을마다에 보내여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오라고 하였으나 500명의 학생중 450여명은 선생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그날을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소년들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공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진…남조선의 '천막 교실'

소설

작은 것으로부터

박 응 호

첫 가을이 깃들기 시작한 어느날입니다.

나는 부근의 인민 학교 소년단으로부터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 끝에 이야기 모임을 가지겠으니 꼭 와서 무슨 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장 일이 바빴지만 시간을 내여 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나는 우선 아이들의 전람품부터 구경하고 싶어서 먼저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전람회장은 세개 교실로 나뉘여 있었는데 첫번 교실에는 교재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들이 놓여 있었고 다음 교실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교실엔 집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들이 진렬되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재간있는 솜씨로 만들어진 이 여러가지 공작품들을 구경하면서 그 훌륭한 솜씨에 놀랐습니다.

두번째 전람실에서였습니다. 나는 이 방에서 뜻밖에도 눈 익은 꼬마 자동차를 보게 되였습니다.

이 꼬마 자동차는 붉은 칠을 한 길이가 1m쯤 되는 자동차였는데 여게는 꼬마 애들이 탈 수 있는 좌석도 있었고 게다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장치된 운전'대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이것을 만든 아이의 이름을 찾아 보았습니다. 꼬마 자동차 앞에 나붙은 종이 쪼박에는 분명히 5학년 김 문식이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김 문식 김 문식…그애가 틀림 없어》.

나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두 구경 오셨어요?》.

이때에 별안간 내 곁에서 수집은듯 한 아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흘깃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내 곁에는 어느새 와서 있었던지 포동포동한 둥근 얼굴에 보조개가 웃을 때마다 두 볼에 새겨지는 낯익은 아이가 반가운듯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냐?》.

나는 반가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5학년이야요》.

그 아이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문식이란 애였습니다.

문식이란 애는 무슨 생각에선지 출입문 쪽을 향해

《영진아! 공원에서 만나는 아저씨가 오셨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왼편 손을 붕대로 감은 아이 하나가 우리께로 뛰여 왔습니다.

나는 인차 그 아이가 영진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대뜸

《그래 데였다던 손은 좀 낫냐?》 하고 물었습니다.

영진이란 애는 빙긋 웃으며 《네!》 하고 힘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얜 이제부터 뜬 생각은 않겠다구 약속했어요》.

문식이가 변명을 해 주듯 나와 영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량켠에 끼며 《좋아, 암 그래야지》 하며 그들을 데리고 다음 방으

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알게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 ×

내가 사는 집 바로 건너편은 넓은 아동 공원이여서 여기는 매일처럼 아이들로 흥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으례히 이 아동 공원을 찾아 가군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산보하기를 즐겨서보다도 본래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지요. 어쨋든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만은 정말이니까……

무더운 여름날 어느저녁입니다.

이날도 나는 공원 나무 그늘 밑 펜취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나의 귀'가엔 이런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문식아 너 오늘 자연 시간 때 수증기의 힘이 얼마나 세찬지 봤지? 난 결심했다. 증기 타빈을 만들테야》.

《아니 그렇게 만들기 힘든걸 너 혼자서?》.

《힘들긴 씨! 두고만 봐, 난 꼭 만든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신문을 읽다 말고 살그머니 신문 넘어로 이 아이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증기 타빈을 혼자 만든다는 아이는 벌써 완성이나 한듯 턱을 척 들고 우쭐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식이란 아이는 좋다마다 더는 말하지 않고 싱글싱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증기타빈을 만든다는 아이는 못마땅한듯 큰 눈을 섬벅거리며

《헹! 난 너처럼 시시한 딸따리 같은건 안만든다구》 하고 으쓱 어깨를 살구는 것이였습니다.

《영진아! 넌 또 잘 생각두 않구 서물다 시계 마사먹든 식으로 할려구 그래?》.

《씨! 시계 하군 다르다》.

영진이란 애는 좀 멋적었던지 슬며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영진이는 여름 방학때 고장난 자기 집 벽시계를 뜯어보다 치차를 부러뜨리고 게다가 태엽까치 끊어버려서 어머니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식이란 애는 그냥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넌 딸따리가 시시한거라구 하지만 만들어만 보면 담엔 더 좋은걸 만들어 보구 싶어진다》.

하고 타이르는듯 말했습니다.

《난 그런 시시한 건 안만든다!》.

영진이는 볼부은 소리로 한마디 던지고는 공원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날 내가 들은 두 아이의 이야기 전부였습니다.

나는 누가 옳고 그른가는 생각할 사이 없이 그저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나는 일주일이 넘도록 공장 연구실에 박혀서 새 기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설계 작업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새 기계 설계를 완성한 다음 날은 일요일이였습니다.

나는 아침을 마치고 오래간 만에 아동 공원을 찾아 갔습니다.

내가 공원에 들어섰을 때 마침 한 떼의 아이들이 왁짜쿵 떠들며 아이를 태운 딸따리를 끌며 밀며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길을 비껴 주면서 무심히 딸따리를 보았습니다.

그 딸따리는 나무 바퀴에 키얕은 통을 올려 놓은 보통 딸따리였는데 내 눈을 끈 것은 바퀴마다 홈을 파고 거게다 솜씨있게 통고무를 씌운 그것이였습니다.

바'줄을 끌고 달리던 아이가 딸따리에 신나서 앉아 있는 꼬마를 돌아 보며 말했습니다.

《문길아, 좋니?》.

그러자 문길이라고 불리운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두 주먹을 넌덕 입에 대더니 《뚜— 뚜—》하고 손라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문득 줄을 끌고 달리는 아이의 얼굴이 낯익어 보여 자세히 눈주어 보니 그 아이는 바로 일주일 전에 만났던 문식이였습니다.

나는 어쩐지 기뻐져 혼자'말로 《문식이는 끝내 딸따리를 만들었군》 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증기 타빈을 만든다고 고집하던 영진이가 생각되였습니다. 어쩐지 알고 싶어 궁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도 문식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그전보다 모양과 구조를 달리한 딸따리를 가지고 공원을 찾아 왔습니다.

그 딸따리는 앞바퀴가 두 발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였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오른 쪽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전날에 문식이가 하던 말을 생각하였습니다.

《한번 만들어만 봐. 담엔 더 좋은걸 만들고 싶어진다!》

나는 더욱 문식이가 미더워만 졌습니다.

그후 나는 다시 보름이 넘도록 공원을 찾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새로 설계한 기계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 설계한 기계에 대해 생각을 더듬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아동 공원 정문 앞을 지나려는 때였습니다.

나는 하마트면 공원에서 굴러 나오는 붉은 색 꼬마 자동차와 마주칠번 하였습니다. 내가 가까스로 꼬마 자동차를 피

해 섰을 때 문식이의 동생 문길이가 차에 타고 앉아 《뚜 뚜》 신바람이 나서 입라팔을 불며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 내 눈을 의심할 형편이였습니다. 이 훌륭한 꼬마 자동차는 분명히 문식이가 만든 것에 틀림 없겠다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문식이는 요전번 딸따리를 다시 자동차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은 맞았습니다. 꼬마 자동차를 뒤따라 문식이가 대여섯명의 아이들과 함께 뛰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한판에 놓고 둘러섰습니다.

그중 키가 고작 작은 아이가 부러운듯 《야 정말 멋찌구나, 넌 정말 기술자야! 이렇게 딸따릴 자동차로 다 고쳐 만들구》. 하며 련방 혀를 차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모여선 아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문식이는 점적한듯 얼굴을 붉히며

《너흰 뭘 자꾸 그러니》.

하며 차동차에 뽐내며 앉아 있는 동생의 더벙머리를 쑥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문길이는 더욱 우쭐해서 《우리 형 이거야 씨!》 하며 엄지 손'가락을 세워 휘둘렀습니다.

《하하…》.

모여 섰던 아이들은 그게 우수워 즐겁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키가 늘씬한 아이 하나가 《얘들아 얘들아》 소리치며 헐레벌떡 아이들에게로 달려 왔습니다.

《큰 일 났다! 영진이가! 영진이가 글쎄》 하며 말 끝을 채 맺지 못하고 마른 침부터 삼켰습니다.

《뭐 영진이가?》

문식이가 놀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응! 증기통이 터졌다! 그래 손을 뎄어!》.

《가보자!》

하며 문식이가 선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도 덩달아 뛰여갔습니다.

이때 나는 영진이가 많이 상하지나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늘 나는 문식이와 영진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 × ×

나는 전람회장을 나서며 시무룩해 있는 영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진이가 만든 것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 말에 영진이는 슬며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전람회장엔 영진이가 만든 물건이란 한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진이가 큰것만 만든다고 서둘다가는 늘 끝을 맺지 못하고 그만 두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너두 봤지, 문식이가 만든 딸따리는 그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게 했거든! 큰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좋으나 작은 것이 큰 것을 낳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저씨……난 정말 지나치게 힘들고 어려운 것 멋찐것을 당장 만들어 낼 것처럼 덤볐드랬어요, 그렇지만 이젠 그러지 않을래요. 나두 이제부턴 문식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큰것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아이가 될래요》.

영진이는 조용히 힘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식이가 영진이의 한쪽 손을 잡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영진인 말야요. 크면 기계를 만드는 기사가 된대요》.

《앤 어떻구요. 문식인 자동차랑 비행기랑 만드는 기술자가 되구프대요》.

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쩐지 가슴이 후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될 수 있구 말구》.

나는 두아이를 힘있게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문식이는 문득 무엇이 생각난듯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우린 오늘 기계 제작 공장 기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모임을 하는데 아저씨두 꼭 참가하세요 네?》.

《정말이야요. 그 선생님은 새로 발명한 기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두 아이는 열심히 나에게 참가하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흰 벌써 그 아저씨와 말을 하고 있잖니?》.

《네?》.

《내가 바로 너희들께 이야기하게 된 그 기사야!》.

그 바람에 두 아이는 그만 어리뻥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하… 알았으면 됐다. 어서 모임 장소로 가자》.

하며 나는 기쁜 마음으로 두 아이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널판자

기중기 돌고 도는 건설장
　　앞 마당에
벽돌 쌓아 널판자 기우뚱
　　올려 놓고
올라간다 덜커덩
　　내려온다 덜커덩
얇은그네 만들었다
　　영이 옥이 신 났는데…

말끔하게 다듬어져 윤기도는
　　널판자
덜커덩 덜커덩 기웃기웃 할
　　때마다

—나는나는 이제 금방
　　기중기 타고 올라
　3층집 아빠트의 새 옷 장이
　　되겠는걸…

널판자는 부러질가 걱정걱정
　　하건만
영이옥인 덜커덩 신이나서
　　덜커덩
아동공원 안가도 멋있다고
　　까불다
그만이야 널판자 부러뜨리고
　　말았지…

엉덩방아 호되게 찧고난
　　영이 옥이
아저씨들 볼가바 슬금슬금
　　내빼니
부러진 널판자 기가 막혀
　　하는 말
《저런 애가 어떻게
　　소년단원이람?》

마을의 꼬마 언니

해가 쨍쨍 내려 쬐이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천읍 제2 농업 협동 조합 마을 정자 나무 밑에서는 숨박꼭질 놀음에 신이 난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 홍 은자 동무와 이웃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였어요.

은자가 손'벽을 치며 《꼭꼭 숨어라…》 하고 노래 부르면 아이들은 따라 노래도 불렀고 두 패로 나뉘여서는 재미나게 소꿉놀이도 하는것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은자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것이였어요.

은자는 이곳 선천제1 인민 학교에 다니는 소년단원이랍니다.

그는 학교에 갔다 오기만 하면 밭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가겠다고 투정 부리는 동생 은실이와 함께 이웃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유희와 소꿉놀이로 재미나게 놀군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지음은 어머니가 밭으로 나가시더라도 아이들은 따라 가려고 힝힝거리지 않고 저희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며 은자가 학교에서 돌아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이렇게 은자는 마을 꼬마들의 친절한 언니로 되였고 어머니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 진균)

경 쟁

어느날 방과후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강당 짓는데 쓸 벽돌 나르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분단에서는 반끼리 대에서는 분단끼리 많이 나르기 경쟁을 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철이가 두루 살펴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자기들이 날라 온 벽돌이 적어 보였습니다. 철이는 반원들에게 소곤소곤 귀'속말을 하여 다른 반이 날라다 놓은 벽돌을 몇장씩 자기들 벽돌 데미에 슬적 가져다 놓았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작업 총화를 했습니다. 철이네 반이 다른 반보다 11장이 더 많아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이네 반원들은 손'벽까지 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께서 분단별 총화가 있었습니다.

철이네 분단은 다른 분단보다 9장이 모자라 분하게두 2등을 했답니다.

분단 동무들이 《애이!》하고 모두 분해 하는데 철이네 반 동무들만은 서로 바라보다 그만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며 철이네 반 동무들은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분단을 속이지 말고 다른 반 동무들처럼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분단이 1등했을꺼》라고.

(옥 선)

첨 성 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신라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쌓은 천문대이다. 그때의 우리 나라 천문학은 세계에 자랑할 만큼 발전되여 있었다.

농업 발전에 필요한 력서를 정확히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이렇듯 천문대를 만들고 천체의 운동을 관찰 연구하였다.

우리 인민들이 자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옛 천문대인 첨성대에 원쑤의 마수가 뻗고 있다. 원쑤 미제 강도들은 군용 도로를 닦는다는 구실로 첨성대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 얼마나 분한 일인가!

정정 : 본호의 《아름다운 금강산》중 그림 4와 5는 번호가 바뀌였음.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9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9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9호 총(84호)
발행소 민주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7—40210 값 25원 52,170부 발행

꽃불 오르는 해방 명절의 밤

(8 • 15 해방 11주년 기념 야회)